

# 복음의 능력을 재발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담/ 이성훈 교수 · 진행/「목회와신학」 박삼열 기자

**지**금은 좀 수그러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이 년 전 한국교계 특히 기독교 서점가에서 관심을 모았던 가계에 저주가 흐른다는 내용의 책이 있었습니다. 상담 현장에 계신 교수님으로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이 주제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느끼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말하기도 하고, 책을 읽은 분들도 많았고, 세미나를 통해 이런 주제를 접한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접한 분들은 대부분 자신들에게도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더군요. 이점이 가계 저주 주제가 급속히 확산된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성도들이 어느 정도로, 혹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주제에 관심을 갖느냐 하는 것에 대해 말하기 이전에 반드시 전제해야 할 게 있어요. 우선, 우리가 성경에 충실하다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로 광범위한 것

이며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점은 우리가 삶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 혹은 심리적으로 얼마나 많은 질병과 고통과 연약함 가운데 있어 야만 하는가 하는 것의 근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고난과 한(恨)으로 점철된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는 점과 또 복음이 전해진 지 백여 년 남짓한 지금 그 이전의 세대는 사실 복음이 없는 삶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해요. 즉 우리의 가문을 따라 올라가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두움 그 자체 속에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밖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가계에 흐르는 저주에 대한 문제에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더욱이 가계의 저주 문제를 생각하든 하지 않든 사람을 상대로 내적 치유 사역을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가계(家系)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만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결국 이 가계와 관련된 문제를 쫓혀놓고는 보다 깊은 상담이나 치유로 나갈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가계의 저주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의 상황에서 당연한 것이기도 해요.

이성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온 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정신과 연구원을 거쳐 연세대 의대 교수를 역임했다. 지금은 연정신경정신과의원 원장으로 있으며, 말씀묵상을 통한 복음 안에서의 내적 치유에 깊은 관심을 갖고 강의와 저술에도 힘쓰고 있다. 「상한 마음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비롯해 「치유적 큐티」, 「사랑하는 마음」, 「내적 치유」 등을 썼다.